



2005년 5월 4일

롤스-로이스 터보메카 RTM322 엔진, 호주 NH90 헬기용 엔진으로 채택

롤스-로이스의 터보메카(RRTM:Rolls-Royce Turbomeca) RTM322 엔진이 호주 국방부의 NHI 사 쌍발형 NH90 다목적 헬기 12 대에 탑재될 엔진으로 선정됐다. RTM322는 이에 앞서 일본 자위대의 EH101 헬리콥터 엔진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.

이로써 호주는 9개국의 RTM322 운용국가, 즉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오만, 포르투갈, 및 스웨덴에 이어 이 엔진을 선택한 10번째 NH90 고객이 되었다. NH90 고객의 90% 이상이 선정한 RTM322 엔진은 총 5종의 NH90 항공기 시제기 버전에 탑재되었다.

RRTM의 회장이자 터보메카의 CEO인 에머릭 아키몰스(Emeric d'Arcimoles)는 “이번 선정은 고객들이 설계, 성능, 구조 및 정비성에 있어서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엔진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. 이 새로운 엔진은 RRTM 파트너 업체인 터보메카 호주의 시설에서 조립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롤스-로이스의 헬리콥터사업 사장인 스콧 크리슬립(Scott Crislip) 사장은 “호주에서 RTM322 엔진을 선정함으로써 동급 세계일류 엔진으로서 그 입지가 강화되었다. RTM322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 엔진의 신뢰성, 동력 및 성장 잠재성은 항공기 부문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소”라고 덧붙였다.

RTM322는 가장 최근에 또한 일본 자위대에 의해 EH101 헬기 주문의 약 65%에 대한 엔진으로 선정되었다.

주문 및 옵션 계약을 포함하여 약 1,500대의 RTM322 엔진이 NH90, WAH-64 아파치, 및 EH101 헬기용으로 채택되었다.

RTM322는 아구스타웨스트랜드(AgustaWestland)/록히드 마틴(Lockheed Martin)의 US101, 시콜스키(Sikorsky)의 S-92 그리고 시콜스키의 UH-60 블랙 호크 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기종에 활용되고 있다.

RTM322는 전자동 디지털 전자 제어(FADEC: Full Authority Digital Electronic Control) 시스템을 장비한 EH101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유일한 엔진이다. 영국 해군 및 공군에서 운용적으로 인가된 엔진의 신뢰성 및 정비성과 더불어, FADEC의 운용 용이성 및 고장 진단 기능은 EH101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엔진으로서의 RTM322 명성을 더욱 높였다.

RTM322 는 롤스-로이스와 터보메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인 롤스-로이스 터보메카에서 제작했다. 1966 년에 설립된 이래 SEPECAT 의 자규어, BAE SYSTEMS 의 호크 및 미츠비시의 T-2/F-1 비행대를 위해 2,600 대 이상의 Adour 터보팬 엔진을 개발 및 제작했다. 1983 년 RRTM 은 RTM322 개발을 착수하여 영국 해군을 위해 1998 년에는 Merlin 의 HM Mk1 그리고 2000 년 3 월에는 GKN 웨스트랜드의 WAH-64 아파치 헬기에서 운용되었다.

###

롤스-로이스 소개자료

롤스-로이스는 전세계적으로 민간항공, 국방 항공우주, 해상 그리고 에너지 등 4 개 분야 시장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. 롤스-로이스는 500 개 이상의 항공사, 4,000 개의 기업 및 다목적 항공기 및 헬리콥터 운영회사, 160 개국의 군대, 그리고 70 개국의 해군을 포함한 2,000 개 이상의 해양업체 등 광범위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있으며, 약 120 여개 나라에 에너지 업체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.

지난 2004 년 창립 100 주년을 맞이한 롤스-로이스의 연간 총매출은 약 60 억 파운드(약 110 억달러)에 달하며, 그 중 55%는 서비스 수익이다. 수주액은 210 억 파운드 (약 390 억달러)로, 이 금액은 서비스 수요와 함께 향후의 기업활동 수준을 가능케 해 준다.

한국의 경우, 롤스-로이스는 대한항공, 아시아나 항공, 각 정부 기관, 그리고 대한민국 육-해-공군에서 운용 중인 300 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 500 대 이상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. 또한 롤스-로이스의 워터제트, 프로펠러 및 선박 기중기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, 해양경찰 및 해안경비청에서 운용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한국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, 국내 사업운용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.

약 80 여명의 직원을 둔 부산 소재의 해양장비공장을 통해 롤스-로이스는 한국, 일본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 아울러,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가스 터빈을 공급함에 따라 세계적인 정유, 가스 그리고 발전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장착되고 있다.

삼성 테크윈은 롤스-로이스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2001 년 서명한 장기계약 하에 롤스-로이스가 생산하는 Airbus A380 용 Trent 900 엔진의 연소실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서울 사무소 외에도 서산과 인천에 서비스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.rolls-royce.com 참조

문의: CPR 차유정 02-739-7353 / junecha@icpr.co.kr
추윤희 02-739-7354 / katechoo@icpr.co.kr